

스피노자의 코나투스 이론

홍 영미

I. 들어가는 말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규정과 관점을 찾아볼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 ‘사회적 동물이다’,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이다’, ‘직립 동물이다’, ‘웃는 동물이다’ 등등,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려는 수 많은 주장들이 있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스피노자에 따르면 이런 방식으로 인간의 본질을 규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위에서 제시된 인간의 본질에 대한 규정들은 인간의 본질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신체의 습관에 따라서 인간에 대해 일반적 이미지를 형성하고 만들어 낸 일반 관념일 뿐¹⁾ 인간의 진정한 본질을 언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스피노자는 인간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일까? 스피노자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은 코나투스(conatus), 즉 자기의 존재를 유지하려는 노력, 추구, 욕망에 있다. 코나투스는 인간을 비롯한 모든 사물의 진정한 본질이다. 스피노자의 코나투스는 모든 사물의 본질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스피노자의 철학 체계 내에서 모든 사물의 질서와 선 악의 가치 그리고 행동의 동기가 되는 원리로서 작용한다. 때문에 스피노자의 철학을 이해하는데 있어 코나투스 개념의 이해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인간의 본질과 관련하여 스피노자의 코나투스의 개념을 규정하고 그것의 의미와 성격은 무엇인지 또한 코나투스가 인간존재에 있어서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코나투스와 본질

스피노자에게 있어서 존재하는 것은 신 혹은 양태이다. 그런데 신을 제외한 모든 것은 양태로서 존재하며 인간을 비롯한 사물들은 모두 유한한 양태에 속한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코나투스는 인간을 비롯한 모든 유한한 사물들, 즉 모든 유한한 양태들의 본질이다. 코나투스 이외에 사물의 본질을 다른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은 그들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올바른 접근 방식이 될 수 없다. 먼저 스피노자가 본질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살펴보자.

“그것이 주어지면 사물이 필연적으로 정립되고 그것이 제거되면 사물이 필연적으로 없이는 것, 또는 그것이 없으면 사물이 그리고 반대로 사물이 없으면 그것이 있을 수도 생각

1) Ethica, Part II, Proposition 40, Scholium (이후로 E. II, P40, Sch.로 약칭함)

될 수도 없는 그러한 것을 나는 어떤 사물의 본질(essentia)이라고 한다."²⁾

자기를 보존하려는 노력은 사물의 본질 자체이며 이것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사물에 공통되는 본질이다. 모든 존재는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려고 애쓴다. 자신의 존재 속에 계속해서 머무르려는 노력이 없다면 사물들은 존재를 유지할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이 노력 (endeavour, conatus)이 사물들의 본질을 이룬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노력이 제거될 때 필연적으로 사물도 제거될 것이며, 또 이것이 없이는 사물은 존재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물이 자신의 존재 안에서 지속하고자 하는 노력이란 스피노자의 철학에서 코나투스로 표현된다.

“각각의 사물은 자신 안에 존재하는 한에서 자신의 존재 안에 남아 있으려고 한다.”³⁾
(Unaquoeque res, quantum in se est, in suo esse perseverare conatur)

스피노자의 철학에서 이 정리만큼 유명하고 중요한 정리는 흔치 않다. 이른바 코나투스라 불리는 이 문구는 그의 철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든 존재는 자기 자신의 존재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자기 존재를 보존하려는 노력, 추구, 경향이 곧 코나투스이다.

스피노자는 코나투스 원리를 모든 존재에, 즉 유기적이고 생명을 가진 사물 뿐만 아니라 가장 단순하고 생명을 갖지 않은 물리적 사물들에까지 광범위하게 적용한다. 다시 말해서 그는 코나투스를 모든 물체들, 인간이나 동물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광물들에까지 적용되는 원리로 고려한다. 모든 사물이 코나투스를 갖는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모든 사물은 자신의 존재를 지속하고 그 자신의 동일성을 보존하려는 특징적인 노력 혹은 경향을 보여 준다. 이런 노력은 그 사물의 고유한 코나투스로서 이는 개별적인 사물들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스피노자는 각 사물이 자신의 존재 안에서 지속하려는 노력은 그 사물의 현실적인 본질이라고 말한다.⁴⁾ 그리고 각 사물이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 즉 코나투스는 그 사물의 주어진 혹은 현실적인 본질로서 그것의 본질을 구성하기 때문에 그 사물이 지속하는 한 계속된다.

모든 사물이 자기 존재 안에서 계속해서 머무르며 지속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에서 그들은 모두 코나투스를 본질로 가진다. 그런데 코나투스 이론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모든 사물이 코나투스를 가진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거나 각각의 코나투스를 구성하는 내용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는 일이다. 우리는 모든 사물이 가진 코나투스의 내용이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 우리가 스피노자의 코나투스를 단순하게 차별이 없는 성향으로 고려한다면 그것은 스피노자의 코나투스 이론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코나투스는 다른 여러 종류의 유한 양태 속에서 각각 다른 형태 혹은 내용을 갖는다. 이

2) E., II, D. 2

3) E., III, P.6

4) E., III, P7

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예가 유기체들이다. 다음의 예를 생각해 보자. 우리는 한 마리의 고양이나 한 그루의 소나무에게 각각 그들 고유의 자립성과 개별성을 부여한다. 한 마리의 고양이 혹은 한 그루의 소나무는 한 사물로 존립하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그 노력이 지속되고 승인되는 한에서만 그들은 존재한다. 이런 점에서 그들은 모두 코나투스를 본질로 가진다. 이것을 우리는 고정되고 일반적인 의미의 코나투스라고 부를 수도 있겠다. 그러나 한 마리의 고양이가 가진 코나투스의 내용과 한 그루의 소나무가 가진 코나투스의 내용이 같다고 볼 수는 없다. 예컨대, 고양이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코나투스와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코나투스는 자기 존재를 보존하고자 노력한다는 일반적이고 고정적인 의미의 코나투스 측면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으나 그것들의 구체적인 코나투스의 내용은 결코 같다고 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물은 다른 사물보다 코나투스를 더 많이 가지거나 더 적게 가질 수 있다. 어떤 사물이 더 많은 코나투스의 내용을 가질수록 그 사물은 그만큼 더 자립적이며 그만큼 더 ‘그 자체’로 있다고 말할 수 있다.⁵⁾

이와 같이 모든 사물은 코나투스에 의해 본질적으로 특징지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각각의 존재를 지속하고자 한다. 각각의 사물은 그것의 코나투스에 따라 그 자신의 특징적인 일관성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한다.⁶⁾ 그리고 이것은 각기 자신의 존재를 지속하려는 활동 혹은 힘으로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다. 스피노자의 코나투스 이론에서 각 사물이 그 존재 안에 있는 한 자신의 존재를 지속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곧 그 사물의 본성에서 생겨나 그 사물의 존재를 지속하려는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고양이는 고양이의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지속하려고 하고 인간은 인간의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보존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고양이는 현실적으로 고양이가 아닌 다른 사물, 예컨대 소나무나 인간이 하는 방식으로 활동할 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기 보존의 추구는 어떤 존재의 특성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 존재의 구체적인 능력을 드러낸다. 각각의 사물은 그가 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규정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물의 코나투스가 어떤 것인가에 따라 그 사물의 능력의 정도를 알 수 있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모든 사물의 존재와 그 존재의 본성 그리고 그 존재의 특성들은 코나투스의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이것은 각 사물의 특성과 개별성이 필연적으로 자기 보존의 내적인 힘인 코나투스에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어떤 사물의 코나투스는 그 사물의 존립과 성질들을 설명할 수 있게 해주는 인과적 원리라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각 사물의 특성과 개별성은 필연적으로 제한된 자기 보존의 힘, 즉 코나투스에 의존한다.

모든 사물이 자기의 존재를 보존하려는 노력인 코나투스는 신의 영원한 본성으로부터 따라온다. 신의 최고 능력 혹은 신의 무한한 본성에서 무한한 것이 무한한 방식으로, 곧 모든 것이 필연적으로 유출되었으며, 또한 항상 동일한 필연성을 갖고 생기는 것처럼 코나투

5) R. Scruton, *Spinoza*, 정창호 역, 시공사, 2000, p.89.

6) 이로부터 마트롱은 스피노자의 코나투스 정리를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 “각 사물은 자신의 존재 능력에 따라 자신의 존재 속에 계속 머무르려고 노력한다.” A.Matheron, *Individu et communauté chez Spinoza*, Les éditions de Minuit, Paris, 1988, p.9

스 역시 그러하다. 모든 사물은 자신의 존재를 보존하고자 노력하도록 신적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 결정되어 있으므로 코나투스⁷⁾는 우리의 의지에 의해 의식적으로 욕구된다거나 우리가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다. 코나투스는 신적 본성의 법칙으로부터 따라나오는 것으로서 모든 사물에 공통하는 선천적인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본질을 스스로 결정한다거나 창조해 나간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은 코나투스의 원리가 사물 본성의 법칙이며 이에 따라 필연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코나투스는 모든 유한한 양태들의 본질로서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자기 존재를 보존하려는 노력인 코나투스는 유한 양태의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경향의 관점에서 정의된다. 각각의 사물이 자기의 존재를 유지하고자 애쓰는 것은 오직 그 사물 자체의 본질에 의하여 정의되는 것⁷⁾일 뿐 어떤 외부적인 원인의 이유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사물이 그 자신의 존재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려는 것은 본성상 필연적인 것으로 사물의 본성 자체의 필연적인 근거에 의해, 본성의 명령에 의해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사물, 즉 모든 유한 양태가 자기 자신을 보존하려고 애쓴다는 코나투스의 원리를 증명하는데 있어서 스피노자가 의거하는 것은 자기 보존의 추구는 본성적이고 필연적이라는 것이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사물들은 가능한 한 그의 존재를 유지하려고 필연적으로 노력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일종의 존재의 법칙이며 본성의 법칙이므로 절대적으로 필연적이다. 모든 사물은 가능한 한 그의 존재를 유지하려고 하며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의 반대는 모순이요, 불가능한 것이다. 즉, 사물이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고자 애쓰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물이 그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자신을 보존하려고 노력한다거나 보존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거나 할 수는 없다.

자기 존재를 보존하기 위해 애쓰는 것은 물리학에서의 관성의 원리처럼 존재의 법칙, 본성의 법칙이다. 때문에 우리는 ‘왜 자기보존을 추구해야 하는가’, 혹은 ‘무엇을 위해서 자기보존을 추구해야 하는가’ 라고 물을 수 없다. 이것은 더 이상 물을 수 없는 궁극적인 명제에 가까운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존재도 다른 것을 위하여 자기의 존재를 보존하고자 노력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떤 다른 것의 본질에서가 아니라 오로지 주어진 이 본질에서 각각의 사물이 자기의 존재를 보존하려고 노력한다는 결론이 필연적으로 따라나온다. 즉, 코나투스 이론은 유한 양태로서의 사물의 진정한 위치로부터 필연적으로 따라나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기 보존의 욕구는 모든 사물의 본질을 구성한다고 스피노자는 주장한다.

이러한 해석은 스피노자의 코나투스 이론이 경험적 차원의 지식이 아니라 그의 형이상학적 전체에 근거하여 주장되는 것이기 때문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어떤 점에서 스피노자는 인간을 비롯한 사물의 본성에 대해 선천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우리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경험 안에서 드러나는 사물의 본성을 말하기보다는 그의 철학의 정

7) E.,IV, P25, Dem.

해진 구조 안에서 그들의 본성은 무엇이어야만 하는가를 말하고 있다. 각각의 사물들은 형이상학적인 필연성에 의해 그 자신의 자기 보존을 추구한다. 때문에 스피노자의 코나투스(consuetudo)는 사실의 경험적 차원에서 이끌어 낸 진리가 아니라 형이상학적인 필연성의 관점에서 도출되는 논리적 진리 같은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⁸⁾

III. 코나투스의 의미

1. 소극적인 의미(지속의 의미로서의 코나투스)

스피노자의 철학에서 유한한 양태가 양태로서 존재한다는 것은 그 양태를 특징짓는 운동과 정지의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모든 유한한 양태로 존재하는 사물들은 각기 고유한 운동과 정지의 비율을 지니고 있다. 스피노자는 기본적으로 신체(corpus)⁹⁾ 혹은 물체적 관점에서 존재하는 사물들을 규정한다. 우리가 물체의 본성에 관하여 주목할 때 즉, 연장이라는 동일한 속성의 개념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모든 물체는 일치한다. 그러나 물체는 운동과 정지, 빠름과 느림에서는 서로 구분된다. 다시 말해서 어떤 특정한 양태인 하나의 사물은 그 자신의 고유한 운동과 정지의 어떤 고정된 비율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고정된 내적인 비율에 따라 물체는 더 단순하거나 더욱 복잡한 사물로 구별된다. 그리고 각각의 사물들은 자신의 고유한 비율을 지속하고 이를 보유하는 한에서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마리의 고양이를 생각해 보자. 그 고양이는 자신의 존재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다른 사물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지속하고 그 자신의 동일성을 보존하려는 고양이만의 특징적인 노력을 보여준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일단 하나의 유한한 양태가 존재하도록 결정되면 그 양태는 자신의 고유한 관계를 갖게 된다. 그리고 그 양태는 자신의 고유한 관계 속에 계속해서 머무르려는 경향을 가지며 자기의 존재를 지속하고자 한다. 각각의 사물들은 외부의 원인들이 그 부분들을 다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도록 결정하지 않는 한, 다시 말해서 자신의 고유한 운동과 정지의 비율을 파괴하는 어떤 외부적인 것과 관계하지 않는 한¹⁰⁾ 자신의 고유한 관계 아래 그 부분들을 계속해서

8) 이런 점에서 스피노자의 코나투스와 흄스의 코나투스는 다르다. 흄스는 인간 본성에 관한 사실적 차원에서 이 원리를 도출해 냈다. 그러나 스피노자는 관찰된 경험적 사실로부터 코나투스를 이끌어 내는 것이 아니라 형이상학적인 필연성의 관점에서 도출해 내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험프셔 같은 학자들은 경험적인 심리학적 명제들을 가지고 스피노자의 코나투스 이론을 비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Hampshire, Stuart, *Spinoza*, London, Faber & Faber, 1951. pp.93-94.

9) 스피노자는 물체와 인간의 신체 모두에 대해 이 용어를 쓴다. 본고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인간은 신체로, 그 외의 경우에는 물체로 corpus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10) 자기 자신의 고유한 관계가 해체된 존재 양태는 쇠약해지고 결국에 가서는 사멸하게 된다. 예를 들어 독은 그의 신체의 부분들을 그의 고유한 본질에 더 이상 상응하지 않는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도록 결정함으로써 그의 신체를 죽음으로 이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스피노자는 신체의 죽음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신체의 부분들이 서로 운동과 정지의 상이한 비율을 취할 때 나는 신체를 죽은 것으로 이해한다.” E., IV, P39, Dem. & Sch.

서 유지하려는 경향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유한한 양태들이 가진 일종의 본성적이고 내재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스피노자는 유한한 양태들, 즉 모든 사물들은 자신 안에 존재하는 한에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고자 노력한다는 명제로 표현하고 있다. 각 사물은 외부의 원인으로 인해 소멸되지 않는 이상에는 그것이 지금 존재하는 것과 똑같은 능력에 의하여 항상 존재를 지속시키기 때문에 코나투스(consuetudo)는 그 사물이 지속하는 한 계속된다.¹¹⁾ 자신의 존재 안에 계속해서 머무르는 것, 그것은 지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코나투스는 일차적으로 무한정한 지속의 의미를 포함한다.

우리가 스피노자의 코나투스 개념을 파악하고자 할 때 두 가지 측면, 즉 소극적인 측면과 적극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접근해 보면 코나투스의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자신의 존재속에 계속해서 머무르며 지속하려는 것, 이것은 코나투스를 지속의 의미, 즉 소극적인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다. 코나투스를 소극적으로 해석할 때 우리는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지속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다. 여기서 코나투스는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고 자신의 존재 속에 계속해서 머무르려는 노력을 뜻한다.

이것은 모든 사물이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는 코나투스의 정리에서 ‘노력한다’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스피노자의 코나투스 이론에서 말하는 노력이란 의식적인 목표나 추구를 뜻한다고 볼 수 없다. 어떤 점에서 스피노자는 ‘노력한다’(conari)는 말의 의미를 변형시켰다고 볼 수 있다.¹²⁾ 코나투스 이론에서 ‘노력한다’라는 용어의 뜻은 우리가 일상적인 언어에서 사용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자신 안에 존재하는 한에서 자기 존재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한다 혹은 애쓰는 것은 목적적인 의미를 가진다기 보다는 물리학에서 말하는 관성(inertia)과 유사한 어떤 것을 말한다. 그래서 어떤 사물이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은 그 사물이 의지를 가지고 의식적으로 노력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물에 필연적이고 선천적으로 새겨져 있는 법칙에 따라 그렇게 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스피노자는 사물이 어떤 목적을 향해 노력한다는 것, 그래서 이 세계를 목적인에 의해 설명하려는 목적론적 사유 방식을 거부한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물이 자신 안에 존재하는 한에서 자신의 존재 안에 남아 있으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자연 법칙 같은 것으로 필연적이고 본성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코나투스 이론은 일종의 관성의 한 종류처럼 생각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설명이 가능하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도너간(A. Donagan)은 다음과 같은 예를 제시한다. 바닷가 해변에 쌓아 놓은 모래성을 생각해 보자. 스피노자의 코나투스 이론의 관점에서 이 모래성은 바닷물에 씻겨 내려가지 않기를 추구한다. 이것은 일종의 자기 보존의 추구이며 코나투스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모래성이 파도에 씻겨 나가는 것을 의도적으로 막으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¹³⁾ 모래성의 예처럼 스피노자의 코나투스 이론에서 ‘추구한다’, ‘노력한다’의 의미는 이런 방식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특히 낮은 단계에 있는 사물들의 경우 그들의 본질이 코나투스라고 할 때 그들이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존재

11) E., III, P8.

12) Donagan, Alan., *Spinoza*,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1988. pp.100-101

13) Donagan, Alan., *op. cit.*, p.152.

의 보존을 추구한다고 볼 수는 없다. 여기에서 사물이 자기 존재의 보존을 추구한다는 것은 자기 존재의 보존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코나투스(Conatus)는 본성의 법칙과 같은 관성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스피노자의 의도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스피노자는 인간이나 동식물을 비롯한 유기체 뿐만 아니라 생명을 갖지 않은 무기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물체에 코나투스 원리를 적용할 수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여기서의 자기 보존의 노력의 의미는 곧 자기 존재를 지속하고자 하는 경향으로서의 본질을 말하며 이것은 코나투스의 개념을 소극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소극적인 의미의 코나투스의 개념은 물리학의 관성의 원리처럼 사물이 다른 사물에 의해 작용받지 않는 한 그 사물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설명해 준다.

2. 능동적 의미(코나투스의 적극적 측면)

이제 코나투스의 적극적인 측면을 살펴보자. 스피노자의 철학에서 어떤 양태가 하나의 구체적인 사물로서 존재하게 된다는 것은 무한히 많은 외연적 부분들이 그 양태의 본질 혹은 능력의 정도에 상응하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도록 외부로부터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이미 언급한 것처럼 어떤 양태로 규정되는 것은 그 양태가 가진 특정한 운동과 정지의 비율이라는 자신의 고유한 관계를 지니게 됨을 말한다. 어떤 양태가 가진 그 고유한 관계는 그 양태적 존재의 본질 혹은 능력의 정도를 동시에 드러낸다. 그리고 각각의 양태, 즉 사물들은 이에 따라 자신의 고유한 관계를 보존하고자 하는 내재적인 노력, 선천적인 경향을 가진다.

그런데 모든 사물의 자기 보존의 힘, 즉 자신의 존재를 보존하려는 내재적인 노력은 결코 동일한 것이 아니며 이런 점에서 각 사물은 상이한 정도로 자기 보존의 힘 혹은 능력을 갖는다. 이것은 바꾸어 말한다면 자기 보존의 내적인 힘이 어떠한가에 따라 어떤 하나의 사물은 다른 사물이 아닌 그 사물로 규정된다는 것을 함의한다. 이것은 코나투스를 능력 혹은 힘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게 한다. 코나투스는 어떤 사물의 구체적인 능력 혹은 힘(potentia)을 나타낸다. 들뢰즈(G. Deleuze)는 'potentia'로서의 코나투스에 주목함으로써 스피노자 철학의 능동적인 성격을 강조한다. 그는 스피노자의 코나투스를 자기 보존을 추구하는 힘 혹은 능력으로 이해한다. 모든 유한한 양태들은 각기 고유한 힘의 정도 혹은 능력의 정도들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코나투스는 다른 사물과 구별되는 특정한 능력의 정도에 상응하는 코나투스를 갖는다. 마치 인간 존재의 코나투스와 고양이의 코나투스가 각각의 능력 혹은 힘을 나타내듯이 인간 존재의 코나투스와 고양이의 코나투스는 인간 존재와 고양이의 능력의 정도를 드러낸다. 그리고 이 능력은 존재 양태의 본질 그 자체이다. 따라서 코나투스는 어떤 존재의 특성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 존재의 구체적인 능력을 나타낸다. 이로부터 코나투스는 어떤 사물의 현실적인 본질, 구체적인 능력, 특성 뿐만 아니라 그 사물 양태의 내적인 지위 등을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코나투스의 적극적인 의미를 보다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 다시 스피노자의 코나투스의 정

리로 들어가 보자. 모든 사물은 자신 안에 존재하는 한에서 자신의 존재 안에 남아 있으려고 한다. 각 사물이 자신의 존재 안에 남아 있으려고 할 때 다른 것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그 사물은 자신 안에 존재하면서 자기의 존재를 보존하기만 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자연 안에는 더 힘있고 더 강한 다른 것에 의해 극복되지 않는 어떤 개물도 주어지지 않는다. 또한 어떤 개물이 주어졌다고 할지라도 주어진 개물을 파괴할 수 있는 더 힘있는 것이 존재한다.¹⁴⁾ 그리고 사물들은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자신들의 외부의 것을 필요로 한다. 모든 사물은 자신의 외부에 있는 다른 사물과 아무 상관 관계 없이 생활한다고 말할 수 없다. 스피노자는 이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표현한다. 사물은 외부의 다른 사물과 상호 작용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물은 외부 사물과 끊임없이 상호 작용하면서 다른 사물과 접촉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각각의 사물은 다른 사물의 코나투스(欲)와 접촉하며 살아나간다. 자연 안에 존재하는 모든 유한한 양태들은 필연적으로 다른 사물과 접촉하면서 상호작용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의 고유한 내적 관계들과 일치하는 사물들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고유한 내적 관계들과 일치하지 않는 부적합한 다른 사물들과 접촉하기도 한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모든 사물은 외부의 다른 사물과 필연적으로 접촉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를 보존하려는 코나투스는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여기에서 코나투스의 적극적인 측면이 대두된다.

사물이 외부의 사물과 접촉할 때 각각의 사물은 외부 환경과의 상호 작용 속에서 자기 존재의 유지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물들을 유지하려고 하고 자기 존재의 유지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행동하고자 한다. 다른 사물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각 사물은 자신에게 적합한 것, 자기 보존에 도움이 되는 것을 지지하고 자기 보존에 방해가 되거나 반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항한다. 자기 보존에 방해가 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저항하려는 힘은 곧 코나투스의 능동적인 노력으로 생각된다. 하나의 사물이 다른 사물과의 상호 작용 속에서 그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려는 힘은, 곧 힘을 증대하려는 노력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노력, 혹은 힘은 그 자신의 활동 능력을 증가시키고 완전성을 높이려는 코나투스의 적극적인 능력에 다름 아니다. 코나투스는 모든 사물의 본질로서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고 자신의 존재 속에 지속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더 더욱 중요한 것은 자기의 존재를 긍정하고 그것을 확장하려는 경향이기도 하다.¹⁵⁾

스피노자에 따르면 이러한 경향 역시 주어진 본질에 의한 것이다. 모든 사물은 본질적으로 불완전한 양태적 존재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모든 사물의 본질은 영원한 결여 혹은 부정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 모든 사물은 자신의 결여를 보완하려는 완성을 향한 내재

14) E., IV, Ax.

15) 이와 관련하여 들뢰즈는 스피노자의 코나투스를 다음과 같은 상이한 세가지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또한 이러한 정의들이 어렵지 않게 조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첫째, 코나투스를 기계론적인 방식으로 정의하면; 유지하다, 계속해서 머무르다의 의미로 둘째, 역학적인 방식으로 정의하면; 증가시키다, 장려하다. 확대하다의 의미로 셋째, 변증법적인 것으로 정의하면; 대답하는 것에 대답하다. 부정하는 것을 부정하다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G.Deleuze, *Spinoza ; A Practical Philosophy*, 박기순 역, 민음사, 1999, p.154

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사물이 본성상, 즉 그것의 본성의 명령에 의해 단순히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 세계와 끊임없이 투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존재 속에 계속 머무르기 위해 각각의 사물은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과 해가 되는 것을 파괴하고 자신에게 유익하고 적합한 것을 보존하고자 노력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의 노력은 능력을 말하며 이때 노력은 능력과 동일시된다고 할 수 있다.¹⁶⁾ 이로부터 코나투스적 의미가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코나투스를 힘 혹은 능력으로 말하는 것은 코나투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측면을 말한다. 모든 사물이 자기 존재의 보존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모든 사물은 그렇게 활동하려는 힘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사실상 스피노자는 코나투스의 적극적인 성격을 강조한다. 코나투스는 자기 보존에 도움이 되는 행위 능력을 증가시키려는 노력에 다름 아니며 이러한 노력은 어떤 사물의 자기 자신의 완전성을 향한 노력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IV. 인간 존재의 코나투스

지금까지 논자는 스피노자의 코나투스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인간 존재에 있어서 코나투스의 개념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알아보자. 자기 보존의 추구가 본성적이고 내재적인 경향이지만 무엇보다도 인간은 고도의 지능을 가진 존재로서 이러한 자기 보존의 노력을 의식한다. 그리고 인간 존재는 자신의 이런 경향을 의식한다는 점에서 다른 사물과 구별된다. 주지하다시피 스피노자는 인간을 정신과 신체의 단일체로서 규정한다. 그러나 스피노자 역시 신체적 측면과 정신적 측면으로 인간 존재를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제 인간 존재의 코나투스가 신체적인 측면과 정신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고찰해 보자.

인간 신체 안에는 그 신체 자체를 그것인 것으로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고정되고 고유한 공통의 어떤 법칙이 존재한다. 다시 말하자면 모든 인간 신체 안에는 인간 신체 만이 지니고 있는 일정한 운동과 정지의 비율이 있다. 그것은 인간이라는 신체의 형상 본질을 유지시키는 것으로 모든 인간 안에 공통적으로 새겨져 있는 자연 법칙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모든 인간 신체는 전체가 항상적인 것으로 유지될 수 있는 이 일정한 법칙에 의해 지배되며 그러한 법칙에 따라 자신을 항상적인 것으로 유지하고 지속하고자 한다. 신체가 자신을 항상적인 상태로 유지하고자 한다는 것, 즉 신체의 항상성의 유지는 코나투스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가벼운 부상을 입었을 때 우리의 신체는 스스로를 복구하면서 그 부상의 위협에 저항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 신체의 모든 기관과 모든 부분들은 부단히 움직이고 변화를 겪으면서도 항상 자신의 형상을 유지하는 상태로 지속시키고자 노력한다. 신체적인 측면에서 인간이 외부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 하면서 인간 고유의 운

16) Parkinson, G.H.R., "Spinoza on the Power & Freedom of Man?" in Freeman, E. & Mandelbaum, M. (eds.) *Spinoza, Essays In Interpretation*, Lasalle, Open Court, 1975, p.10

동과 정지의 고정된 내적인 체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할 때 이것은 곧 인간이 신체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존립하려는 코나투스¹⁷⁾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의 코나투스는 소극적 의미로서 지속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인간은 자신의 활동 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또한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활동하려고 한다. 스피노자는 많은 것들을 행하고 경험하기 위한 적합한 신체에 대해 언급하는데 이것은 신체적인 측면에서의 코나투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을 잘 나타내 준다고 하겠다. 능동적으로 존립하려는 코나투스는 신체 능력의 증대에 힘쓴다. 많은 것들을 행하고 경험하기 위해 적합한 신체가 된다는 것은 신체의 능력 혹은 힘을 증대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신체적 측면에서 능동적으로 존립하려는 코나투스에 다름 아니다.

이것은 인간 존재의 정신적 측면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스피노자에게 있어서 신체의 노력은 곧 정신의 노력이다.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인간은 본성적으로 사유의 능력을 보존하려고 노력한다. 정신은 자신의 존재 안에 무한한 시간 동안 지속하려고 노력하며, 또한 이러한 자신의 노력을 의식하면서 그것을 증가시키려고 노력한다.¹⁷⁾ 이러한 사유의 경향은 자기 보존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물이나 관념들을 지지하려는 노력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정신이 본성상 자기 보존을 강화하는 그런 사물을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자기 보존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사유 속에서 억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으로부터 입증된다. 그리하여 정신은 사유 능력이 증대되거나 촉진되는 것을 가능한 한 표상하려고 하며 반대로 감소하거나 저해되는 것을 표상하기를 피하려고 한다.¹⁸⁾ 능동적으로 사유하려는 힘, 스피노자의 철학에서 이것은 타당하지 못한 사유를 타당한 사유로 끊임없이 대체하려는 경향, 노력으로 설명된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적극적인 코나투스에 다름 아니다. 인간은 고차적인 의식 능력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를 보존하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존재로서 각각의 인간은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측면에서 그들의 현실적 본질을 구성하는 힘과 활동성을 증가시키려고 노력한다.

인간 존재의 코나투스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지, 욕구, 욕망이라는 스피노자 특유의 개념들 속에서 잘 나타나 있다. 스피노자의 언명을 보자.

“자기의 존재를 보존하고자 하는 이 노력이 정신에만 관계될 때는 의지(voluntas)라고 일컬어지지만, 그것이 정신과 신체에 동시에 관계될 때에는 욕구라고 일컬어진다. 그러므로 욕구(appetitus)는 자신의 유지에 유용한 것에서 생겨서 인간으로 하여금 그것을 행하도록 하는 인간의 본질 자체에 지나지 않는다.”¹⁹⁾

각각의 인간은 즉, 연장에 속하는 각각의 신체와 사유에 속하는 각각의 인간의 정신은 자신의 존재 속에 계속해서 머무르고자 욕구한다. 그리고 이러한 욕구가 인간 존재에 의해 의식될 때 그것은 욕망으로 나타난다. 스피노자는 욕망(cupiditas)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

17) E.,III, P9

18) E.,III, P12 & 13.

19) E.,III, P9, Sch..

다.

“욕망은 인간의 본질 자체이다. 즉, 그것은 인간이 자기의 존재에 머물고자 하는 노력이다.”²⁰⁾

인간이 자기 보존의 노력을 의식할 때 스피노자는 그것을 욕망이라고 부른다. 욕망은 주로 인간에게 관계되는 것으로서 자기 보존의 노력을 의식하는 코나투스, 즉 인간 존재의 코나투스에 다름 아니다.

그렇다면 인간 존재는 무엇을 욕망하며 무엇 때문에 욕망하는가? 코나투스의 정리에서 노력의 의미와 더불어 또 하나 ‘보존한다’는 말에 대해 주목해 보자. 이것에 주목할 때 우리는 인간 존재에 있어서의 자기 보존의 추구하고 관련하여 스피노자가 궁극적으로 의도하는 바가 무엇이며 인간 존재가 욕망하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의 존재를 보존하고자 노력한다고 할 때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을 보존한다는 것인가. 이는 코나투스 이론에서 스피노자의 자아를 두 가지 의미로 나누어 생각해 보면 보다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다. 자기 존재를 유지하려는 일시적이고 물리적인 자아와 자기 존재를 유지하려는 이성적이고 영원한 자아를 생각할 수 있다.²¹⁾ 그래서 자기 존재를 유지한다고 할 때 우리는 일시적이고 물리적인 자아의 코나투스와 이성적이고 영원한 자아의 코나투스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전자는 신체적인 측면의 코나투스, 후자는 정신적인 측면의 코나투스와 연관된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성적인 자아의 자기 보존의 노력은 현실에서 종종 일시적이고 생물학적인 자아의 자기 보존의 노력과 충돌하는 듯이 보인다. 자살의 경우는 이런 갈등의 측면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실제로 어떤 학자들은 자살을 예로 들면서 스피노자의 코나투스 이론은 일관성을 잃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자살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성적인 완전함의 이상을 추구하는 코나투스는 생물학적 의미에서의 코나투스인 자기 보존의 노력과 충돌하는 듯이 보인다. 자살에 대한 스피노자의 공식적인 대답은 다음과 같다. 자살에의 충동은 정신이 자신의 원초적인 노력에 순응하는 한 마음 속에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 우리의 신체의 존재를 없애버린다는 관념은 우리의 마음 속에 일어날 수 없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과 대립된다. 때문에 의도적인 자살은 모순이며 우리의 본성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마음의 코나투스의 결과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하는 것은 자기의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본성과 모순되는 외적 원인에 정복당해서 혹은 외적 원인에 강제되어 그렇게 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면 우리는 스피노자의 철학 안에서 권력의 폭군에 맞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의로운 사람의 자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자기 존재를 보존하려는 인간 존재의 코나투스는 자신의 존재를 보존하지 않겠다는 자살의 경우를 설명할 수 없는 것일까? 이러한 비판이

20) E.IV, P18, Dem.

21) Bidney, David., *The Psychology & Ethics of Spinoza*, New Haven:Yale, University Press, 1940. p.267.

올바른 것이라면 스피노자의 코나투스 이론은 중대한 결함을 안게 된다. 그러나 이는 스피노자의 입장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스피노자는 자신의 코나투스 이론에 이런 갈등의 요소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에티카』 4부의 한 정리에서 다음과 같이 언명함으로써 오히려 우리에게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며 단지 구차하게 생존을 도모하고자 죽음을 피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고 암시한다.

“다음과 같은 물음이 제기될지도 모른다. 만일 인간이 자신의 신념을 버림으로써 현재 죽음의 위협에서 해방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신의 존재를 보존하려는 이성은 무조건 신념을 버리라고 권할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답하겠다. 즉, 만일 이성이 그것을 권한다면 이성은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권한다. 그러므로 이성은 절대적으로 사람들에게 오직 간사하게 계약을 맺고 힘을 결합하며 공통의 법을 갖기를, 즉 실제로 공통의 법을 갖지 않기를 권한다. 이것은 불합리하다.”²²⁾

이러한 스피노자의 입장을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스피노자가 이성의 지도에 따라서 자기의 존재를 보존하는 것에 대해 말할 때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각각의 인간 존재는 그가 자신 안에 존재하는 한, 진정으로 그가 보존하고자 하는 것은 이성적이고 영원한 자아의 보존이다. 스피노자는 단지 생물학적인 의미에서의 자기 생명의 보존만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진정으로 자아가 보존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성적인 측면의 자기보존이며 인간 존재는 이성적인 한 참으로 그 자신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성은 각자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한 자기의 존재를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 진실로 이성은 인간을 더 큰 완전성으로 이끌어 주는 것을 요구한다.”²³⁾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스피노자에게 있어서 진정한 자아는 이성적이고 영원한 자아를 말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 보존의 진정한 활동은 이성의 활동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스피노자는 이런 관점에서 자기 보존의 추구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의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인간이 신념을 버리기보다 오히려 죽음을 택함으로써 그의 존재를 더욱 잘 보존하는 어떤 경우가 있다는 것이 스피노자의 진정한 의도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²⁴⁾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스피노자의 철학 사상 안에서 위의 정리(4부 72주석)의 주장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보여줄 수 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는 스피노자의 코나투스 원리를 이기주의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자기 자신의 이익의 추구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과도 상통한다.

22) E.IV, P72, Sch.

23) E.,IV, P18, Sch.

24) Steinberg, Diane, “Spinoza’s Ethical Doctrine & the Unity of Human Nature”, in *Journal of the History of Philosophy*, vol.22(July 1984), p.304.

실제로 스피노자는 각자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면 할수록, 즉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이를 달성하면 할수록 더욱 더 유덕하다고 말한다.²⁵⁾ 이러한 표현은 일부 학자들로 하여금 스피노자의 코나투스 이론을 윤리적 이기주의라고 주장하게 하는 단초를 제공한다. 그러나 스피노자의 이론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은 그의 진정한 의도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이성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거나 자기의 이익, 즉 자기에게 참으로 이익인 것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진실로 인간을 더 큰 완전성으로 이끌어 주는 모든 것을 욕구하거나 일반적으로 말해서, 각자가 자기 안에 있는 한 자기의 존재를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 그래서 스피노자에게 있어서 참으로 이익인 것이란, 곧 인간이 더 큰 완전성으로 이행되는 것과 같다.

이로부터 우리는 스피노자가 모든 사물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이 원칙, 즉 코나투스를 덕의 기초가 아니라 불경건함의 기초라고 믿는 사람들에 대해 비판하면서, 오히려 이 원칙은 덕과 경건함의 기초가 된다고 주장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스피노자는 덕을 고유한 본성의 법칙에 따른 작용이라고 규정하면서 코나투스와 덕을 동일한 것이라고 본다. 인간이 자기 존재를 보존하고자 노력한다는 것은 이성의 인도에 따라 행동하고 자기 존재를 보존한다는 것이며, 순수하게 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고유한 본성의 법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자는 같은 것이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코나투스는 덕이며 또한 능력으로 자기를 보존하려는 노력은 덕의 첫째가는 유일한 기초가 된다. 그래서 그는 참으로 덕으로 행동하는 것은 우리가 이성의 지도에 따라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기초로 행동하고 생활하며 자기의 존재를 보존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한다.²⁶⁾ 또한 이 세 가지는 즉, 덕으로 행동하는 것, 이성의 지도에 따라서 행동하고 생활하는 것, 그리고 자기의 존재를 보존하는 것은 같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스피노자가 코나투스 이론에서 진정으로 의도하는 것이 이성적 차원의 자기 보존이라는 것은 홉스의 코나투스와 비교해 보면 더욱 잘 드러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홉스는 그의 유명한 ‘자연 상태’에 관한 논의 속에서 코나투스의 개념을 사용한다. 자연 상태 속에서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 보존(self-preservation)을 목적으로서 추구하고 각각의 인간 존재는 자기 보존을 위해 또한 이런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 힘의 획득을 위해 끊임없이 투쟁한다. 이로부터 ‘만인 대 만인의 투쟁’(bellum omnium contra omnes)이라는 전쟁 상태 혹은 경쟁적인 상태가 된다고 홉스는 말한다. 홉스의 이성은 이 때 등장한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이성은 자연 상태가 가져오는 불행한 결과를 깨닫고, 자기 보존을 가장 잘 보장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역할을 맡는다. 이로부터 이성은 인간들에게 국가라는 통치 체도를 만들고 이에 따를 것을 가르쳐 준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홉스의 인간에 대한 규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인간을 물질적인 존재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존재로 이해한다. 때문에 인간 존재의 자기 보존의 추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즉 이성을 통한 힘의 확장 혹은 권력의 확장을 위한 끝없는 투쟁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25) E,IV, P20.

26) E.,IV, P24.

그러나 스피노자의 인간은 홉스와는 다르다. 스피노자가 이해하는 인간은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두 측면을 가진, 다시 말해서 연장이라는 속성과 사유라는 속성으로 구성된 신체-정신 단일체이다. 그리고 스피노자는 인간을 참으로 인간이게 하는 것은 사유라는 속성을 본질로 하는 정신적 측면에 있음을 강조한다. 앞서 우리가 그의 자아를 물리적인 자아와 이성적인 자아로 나누어 생각하면서 진정한 자아는 후자에 있음을 주장한 것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스피노자의 코나투스도 홉스와 같이 이성을 통한 자기 보존이 아니라 이성적 측면의 자기 보존을 주장한다. 인간이 진정으로 자기 존재를 잘 보존한다는 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측면에서의 힘의 증대만을 뜻하는게 아니다. 이성의 인도 아래 이끌려지는 자기 보존, 이것이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잘 보존하는 것이다. 스피노자의 철학 안에서 인간 존재의 코나투스는 더 많이 이성적이 됨을 추구하는 것, 혹은 자기 자신을 보다 완전하게 실현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보다 자기를 실현하려는, 자아 실현, 자기 완전성의 욕구는 인간의 본성에 속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욕구에 필연적으로 지배된다. 실제로 많은 학자들은 코나투스를 자아 실현으로 해석하는데 동의하면서 스피노자의 자기 보존의 추구는 자신의 존재를 보다 완전하게 만들기를 욕구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코나투스는 내재적이고 선천적인 경향으로서 이성의 차원에서 자기 자신을 완성하는 것이다. 자기 보존은 그 자체가 목적이며 선이라는 스피노자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한다. 인간이 참으로 자기 존재를 잘 보존하지 않으면서 자유와 행복을 욕구할 수 있을까? 아마 그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성의 인도에 따라서 자기 존재를 보존할 때 그것은 그 자체로 덕이며 행복이 된다. 스피노자는 인간이 본성적으로 자기 향상, 자기 완전성을 추구하는 존재임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스피노자는 진정한 자기 보존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라고 요구한다. 인간은 자아 실현을 욕구할 뿐만 아니라 이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다름 아닌 인간의 이성적인 능력에서 온다. 인간의 이성은 반성적이고 체계적인 사유를 통해서 자기 보존에 참으로 유익한 것을 찾아내고 이에 따라 행동하도록 요구한다. 우리가 인간 존재의 이러한 사실을 직시한다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자아 실현을 추구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V. 나가는 말

스피노자의 철학 사상 안에서 코나투스 이론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마트롱(A.Matheron)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코나투스 이론은 스피노자주의의 근본적인 토대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본고는 코나투스의 일반적인 개념, 의미 등을 살펴보고 이것이 인간 존재에 있어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설명될 수 있는지를 탐색해 보았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코나투스는 모든 사물의 본질이며 모든 사물은 이에 따라 움직여진다. 이를 인간 존재에 적용하면 코나투스는 인간의 진정한 본질을 말해주는 것으로서 인간적 정서와 가치의 원천이며 모든 인간 행동의 기본적인 동기가 되는 힘으로서 작용한다. 인간이 자기 존재를 유지하려는 욕망을 갖는다는 것은 자기 존재에 대한 절대적인 긍정의 표

현이며 우리의 삶의 출발점인 동시에 목적이다. 인간 존재가 자기 보존에 도움이 되는 것에 기쁨으로 자극될 때, 반대로 인간 존재가 자기 보존에 저해가 되는 것에 슬픔으로 자극될 때 우리는 코나투스 존재를 경험적으로 의식한다. 스피노자에게 있어서 코나투스는 신적 본성의 법칙으로부터 따라나오는 형이상학적 필연성으로서의 본질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경험적 사실이다.

코나투스는 본질로서 절대적인 필연성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향을 의식하는 인간 존재에게 있어서 코나투스는 단지 자기의 존재를 유지하고 지속하려는 소극적인 측면에 그치지 않는다. 스피노자가 인간 존재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노력을 강조할 때 우리는 코나투스의 능동적인 측면에 주목하게 된다. 코나투스는 자신의 존재 속에 계속해서 머무르려는 노력인 동시에 이성의 인도 아래 행위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보다 잘 보존하려는 적극적인 노력, 추구, 경향이다. 인간은 참으로 자기 보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유하고 행동하고자 한다. 우리는 인간 존재가 끊임없이 타당한 관념을 추구하는 인식적 활동 속에서, 또한 기쁜 정서들과 능동적 감정들을 체험하고 이를 획득함으로써 자유를 확장하고자 하는 부단한 노력 속에서 코나투스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더 큰 행복으로 다다가고자 한다면, 그리고 참으로 자아 실현을 원한다면 진정으로 자기 존재의 보존을 추구하라. 진정한 자기 보존에 힘쓸 때 인간은 더 완전하고 자유로우며 행복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스피노자 철학을 관통하는 기본적인 의도라고 논자는 생각한다. 우리가 스피노자 철학의 이러한 측면에 주목하지 않는다면 그의 사상을 결코 온전히 읽어낼 수는 없을 것이다.